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예비자 교리 일정 안내

- 첫모임: 9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사제관 (3537 Chowning Ct, Columbus)
- * 신청하실 분들은 곽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9월 21일 주일 미사 중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습니다.

◆ 추석 야외미사

- 일시: 9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Scioto Park
- *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조상들을 위한 연미사 예물을 가정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성모회 9월 모임

- 일시: 9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선 데레사 자매님 댁 (614-792-9391)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31일: 서경환
- 9월 7일: 김성용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9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4,2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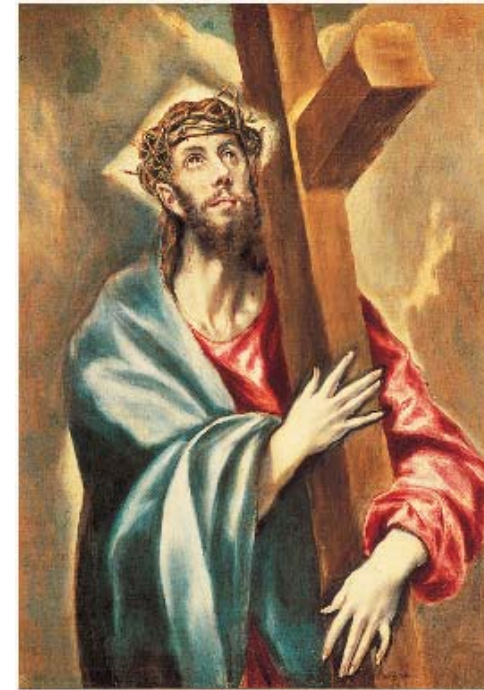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22주일 August 31, 2008



<십자가를 안고 가는 예수>

엘 그레코 (1541 - 1614), 유화,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주 일 헌 금 | \$436.00 |
| 교 무 금 | \$1,660.00 |
| BAA | \$2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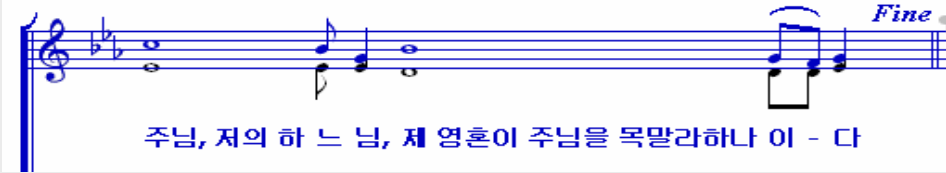
- 교 무 금: 김영숙 한석철 김한식 김오경 신현태
고상식 최석원
- BAA: 최규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0,7-9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치욕거리만 되었습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12,1-2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21-27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 구역 | 지난 주일 | 합계 |
|-------|-------|--------------------------|
| 김제준 | 단 명 | 2,065단 17명 |
| 이호영 | 단 명 | 8,708단 75명 |
| 정하상 | 단 명 | 3,485단 77명 |
| 황석두 | 단 명 | 6,645단 70명 |
| 김효임 | 단 명 | 1,171단 29명 |
| 학생 구역 | 단 명 | 10단 2명 |
| 미사중 | 단 명 | 12,109단 10,315명 |
| | 단 명 | 2/22/04 - 8/24/08 (236주) |

☞ 총누계: 198,428단 12,68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 | 8월 31일 | 9월 7일 |
|---------|----------------------|----------------------|
| 전례준비 | 김준승 | 김준식 |
| 해설자 | 신현태 | 곽광주 |
| 독서/봉헌 | 김한식 김순자 황석두 구역 | 전경화 김성애 김제준 구역 |
| 보편지향 기도 | 평화의 모후 | 상지의 옥좌 |

오늘의 성가

♫ 입당: 5 ♫ 봉헌: 510
 ♫ 성체: 152 164 ♫ 파견: 446

죽어야 사는 길

박문식 베네딕도 신부 /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세 차례에 걸쳐 예언하셨다(마태 16,21-23; 17,22-23; 20,17-19). ‘되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일으켜지다’라는 뜻이다.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만 하느님에 의해 일으켜지셨다는 대비 사상이 들어 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6,25).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의 구절을 알았을까? 그 역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必死則生 必生則死)’라는 명언을 남겼으니, 이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던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사랑을 완성시켰다고 생각했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보내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다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 안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었다. 그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다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다”(안셀름 그린).

결국 예수님께서 바로 ‘나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나만’을 위하여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삼중기도 때마다 우리는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십자가란 죄악, 절망, 슬픔, 고통, 실패, 더러움, ‘죽음의 대명사’였는데, 그 사형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구원, 기쁨, 희망, 사랑,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벗어버린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한다.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를 치워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김장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다섯 번 죽어야 한다. 땅에서 뽑혀서,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소금에 절여지면서, 맵고 짠 양념에 범벅이 되어서, 김치독에 담겨 땅에 묻혀야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고 한다.

내가 죽지 못하니 내 안에 죽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살려 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이것은 보편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또한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한다.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고 얼마나 무거울까?

걱정할 것 없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 무게를 지워 주시며, 아울러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19-20).